



<1> 실크로드 '별酒' - 김해성



실크로드의 길목인 중국 란저우(蘭州) 빙링스(炳靈寺) 석굴 입구는 유가협 댐이 조성된 후 뱃길로 변했다.

# 인생여행이란 게 좋기만 하겠나... 세상을 안방 삼아 즐기세

아! 저 많은 말로는 뭐라 형용키 힘든 아름다운 별들. 태고의 그 누군가도 오늘의 나처럼 자다 일어나 감동 어린 눈으로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겠지? 수천, 수만 년 동안 늘 변함없이 그대로였을, 저 깊고 넓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심연에 흠뻑 젖진 별들. 어젯밤, 흠으로 빛어 초벌로 구워 만든 질박한 작은 잔에 가득 부은 우리의 막걸리와도 같은 '창'이라는 술을 입으로 가져 오다가 깜짝 놀랐지. 잔에는 마치 시리얼처럼 별들이 빼곡하게 가득. 다 타버린 모닥불의 깜박이는 불씨로 모여 앉은 사람들의 실루엣만 어렵게 집작게 할 정도로 캄캄한 가운데 옹골 들 어간 사막 가운데서 보이는 커다란 원형 그릇, 그 안에 가득 담긴 별 하늘과 그 아래 동그랗고 자그마한 술잔에 가득 담긴 별 별기들, 내가 앉아 올라다보는 곳이 하늘인지 내가 들여다보는 잔이 하늘인지 대체 분간이 되질 않아.

별이 가득한 잔을 그대로 마셨다간 뽀족한 별들로 인해 목에 상처를 입을까봐 입으로 호호 불며 별들을 밀쳐 내고 술을 마셨지. 열큰하게 누운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캄캄한 우주의 한 칸에 떠있더라도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

마지막 우주의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유영하다가 이 사이에 긴 잔별들을 깨끼 손톱으로 정교하게 깎집어 내 "톡"하고 튀겨 내면 그 작은 것이 반짝거리는 꼬리를 달고 "쑤웅"하고 허공을 가르며 불꽃놀이처럼 춤을 춘다...

'으~음' 거의 신음에 가까운 감탄사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뱃고 말았지. 아! 사막의 그 아름다운 별들이여.

여행이란 게 저 좋기만 하겠어?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들도 있고, 바가지요금에 씌우는 악삭빠른 상인들이 불쾌하게 하기도 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있어 좋더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의 사람들은 조금 많은 것도 같은데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참 순수했어.

사막의 밤은 선선한 초가를 정도나 된다고 해야 할까? 물론 사막에서의 한낮은, 낮을 달군 별은 살을 익힐 만큼이나 뜨거웠지. 그렇지



만 또 해가 떨어지면 추워지고...

여행에서 가장 신났던 일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성큼성큼 뛰어 댕기는 것이었어. 처음엔 빨리 가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랐는데(낙타의 주인은 입으로 '꿀꿀' 소리만 내도 놀란 토끼 마냥 마구 잘도 달리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고. 발로 걷어차고 막대기 하나 주워 마구 때렸더니, 그 뒤론 별말 없이 막대기만 들어도 잘도 달리더군.

내가 올라탄 낙타의 이름은 '뱃부'라 했어. 녀석이름이 '뱃뽀'하고 비슷해서 잘 뽀 줄 알았지. 하나나이가 좀 든 낙타여서 막대기를 들어야 그나마 달리는 시늉을 조금 내려다 마는 전혀 안 '뱃뽀' 놔이었어.

그렇지만 알다시피 댕에 장사 있니? 몇 대 언어맛 더군. 쫓 붙성한 녀석. 그래도 미안해서 '뽀뽀' 소리만 할 뿐 미소로 달래주었지.

사막은 언제나처럼 모래바람이 불고, '뱃부'는 오늘도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걷고 있을 거야. 밤하늘 별들이 내 술잔 속에 뜨듯 진즉 내 인생도 그 밤하늘에 두고 왔어.

언젠가 저 하늘로 돌아갈 때 이미 내가 그곳에 살고 있었을 꺼내고, 나는 또 하나의 나를 남겨 맞을 것 이야. 내 그림이 내 다른 모습이듯 저 별들은 내 여러 갈래 마음들... 사막은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만나는 공간이지.

일제가 하나임을..... 작고 크고 저마다 다른 세계에서 흠어진 모래알이 뭉쳐 모래언덕을 이루듯 사막 같은 이 세계를 안방삼아 노닐며 사는 우리들.

이 여행을 즐기자. 이 멋진 '인생여행'을 위하여 별이 담긴 이 술잔으로 다 같이 건배!



사막의 밤. 선선한 초가는 정도나 된다고 해야 할까? 물론 사막에서의 한낮은, 낮을 달군 별은 살을 익힐 만큼이나 뜨거웠지. 그렇지



**김해성**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19회  
 -퀵아트페어(퀵), All About Korea(White Box, Munich, Germany) 등 단체전 500여회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한국미술협회 이사, 선과 색 회원